

지역사회거주 비혼모의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경험에 관한 연구 : 모성권과 노동권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Experience of Unmarried Mothers Living in Community
: Focusing on Maternity Rights and Labor Rights

연구법인 질적연구 HA 연구소
책임연구원 강라현

Research Corporation Qualitative Research HA Research Center
Senior Researcher Kang, Ra Hyeon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논의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창업에 성공한 지역사회거주 비혼모들의 기업가정신 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자녀 출산, 양육과 직업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비혼모 5인의 모성권과 노동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일대일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를 Colaizzi(1978)가 제안한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53개의 주제와, 10개의 주제결집이 드러났다.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갈등 극복, 창업의 계기, 창업 성공 경험의 범주에 재배열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결집은 '생명단절의 압력', '축복받지 못한 생명을 떠맡음', '낙인과 기회의 박탈', '기본 생활 유지 불안과의 동고동락(同苦同樂)', '인생 제로(Zero)그라운드에서의 시작', '일과 양육, 줄다리기', '지원보다는 나의 능력에 의지', '신용 자본의 획득', '동반 성장 철학', '벼랑 끝에서 만난 무한 가능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과 자녀의 생존을 위해 긍정심리자본을 기반으로 창업을 시도한 결과 사회적 자본이 드러났으며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반 성장의 윤리와 레질리언스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주제어: 비혼모, 기업가 정신, 동반 성장, 모성권, 노동권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ntrepreneurial experiences of unmarried mothers living in a community who have succeeded in starting a business. Attention was given to the maternal and labor rights of five single mothers in a community who gave birth, raised children, and engaged in vocational activiti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e-on-one in-depth discussions with the participants and analyzed using Colaizzi's descriptive-phenomenological method. The data analysis revealed 53 themes and 10 clusters of themes. Based on these results, items such as overcoming pregnancy conflict, reasons for starting a business, and successful entrepreneurial experience were identified and described. The key themes of this study include "Pressure to live", "Hold oneself responsible for an unblest life", "Stigma and deprivation of opportunity", "Maintaining basic life amid anxiety", "Starting from ground zero", "Work and parenting tug-of-war", "Let's rely on my ability rather than external support", "Securing credit capital", "Philosophy for shared growth" and "Infinite possibilities at the edge of a cliff". In the attempt

to start a business usi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for the well-being of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s, the mothers uncovered social capital, which led to mutual growth.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ethics and resilience of shared growth were discussed.

Key words: Unmarried mothers, Entrepreneurship, Shared growth, Maternal rights, Labor rights

I. 서론

한국 사회에서 비혼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2022)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비혼모 20,572명이며 전체 혼인 인구인 24,575,224명의 0.083%를 차지한다. 비혼모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신과 자녀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사회적 편견, 낙인과 함께 과소평가되며 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비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제·개정과 함께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지만(여성가족부, 2023) 여전히 경제적 압박(변호순·최정균, 2016; 강라현, 2019)과 편견(신필식, 2017; 손승영, 2020), 낙인(홍양희, 2013; 이미선·김민아, 2019; 정지연·이미정, 2022) 등에 노출되어 있다. 그 예로 법률혼을 가장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가족유형으로 인정하는 한국사회에서 비혼모의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차별적인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강라현, 2022; 정지연·이미정, 2022). 현재까지 수행된 비혼모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비혼모의 자녀 양육과 독립적인 삶은 당사자는 물론 사회구성원 모두가 바라는 실재이지만 비혼모들은 모자 보호시설, 공동생활시설, 지역사회를 불문하고 경제적 어려움(변호순·최정균, 2016; 이미정 외, 2018; Kleven, Landais & Sogaard, 2019)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출산 전·후로 직장에서 퇴사를 강요받거나(김지현·권미경·최윤경, 2018; 이미정 외, 2018; 강라현, 2019) 구직활동에서의 차별경험(김지현 외, 2018; 이미선·김민아, 2019; Tracey & Phillips, 2016) 사회참여의 제한과 낙인(정미경·김승용, 2020; Morris & Munt, 2019),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문제에 노출(이동귀 외, 2019; 전정화·엄태완, 2019)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보고된다.

특히, 경제적 자립은 비혼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요소이다. 즉,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직업생활 유지가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비혼모는 구직활동과 직장에서의 퇴출을 반복하는 어려움이 동반된다. 특히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병행해야하는 비혼모의 경우 구직효능감이 중요하다. 구직효능감(Job-seeking efficacy)이란 반두라(Bandura)의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을 구직에 적용한 개념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구직효능감 이론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구직효능감을 가진 개인들은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

에 접근하며(변미정·김봉환, 2022) 적극적인 태도로 구직활동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과 기호에 부합되는 직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종태, 2022). 즉, 구직효능감은 취업, 재취업의 욕구가 높을수록 고용 불안, 직업 유지, 과제 수행에 긍정적인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Mat et al, 2017; Muhamad et al., 2020). 하지만 구직효능감 자체가 비혼모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만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직업생활 이외에 경제적 자원을 획득하는 활동 중 하나로 창업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창업과 기업이 활동을 하는 비혼모는 빈곤선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하며 빈곤율은 12%에 불과하다. 이는 탈수급을 하거나 빈곤 유지 기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나타났다(Mat et al,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 이론에 의하면 여성이 창업을 결정하고 기업가로 발전하여도 사회에서는 차별적 담론이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이 활동이 여성들에게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단선적인 인과론을 제시할 수는 없다(Marlow, 2020; Cantergiani, 2021).

비혼모는 직업 활동 이외에도 자녀 양육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지니고 있다. 현재 비혼모와 같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지원서비스는 구축되어 있으나(여성가족부, 2023) 사회적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에는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들이 노동 시장에 재진입, 창업활동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 문제가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가족, 사회차원에서 지원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Jamaluddin et al., 2022). 그리고 비혼모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방해하는 장벽 중 하나로 근로조건, 직업 활동과 삶의 불균형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Leonard et al., 2020). 이처럼 비혼모들은 근로조건외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급여생활자보다는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Herbst-Debby, 2022; Casey, 2023). 반면, 여성, 비혼모의 창업은 다른 대상의 창업가들에 비해 어려운 구조에 처해있다. 취약한 자본은 물론 기업 경영 노하우의 취약성이라는 장벽 또한 존재한다(정영수·정철호, 2023; Mohd et al., 2021; Rifai & Goh, 2021).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비혼 여성의 출산, 자녀양육은 편견, 기회 배제, 차별 장벽, 사회적 낙인, 자본의 취약성 등으로 창업의 불리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창업은 개인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선택인 동시에 많은 장벽이 존재하지만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선택의 일환이다.

연구자는 비혼 여성으로서 자녀 출산 후 양육을 결정했으며 현재 창업을 통해 기업가로 성장한 비혼모 5인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 입·퇴소 경험 없이 지역사회거주를 유지하고 있는 비혼모 5인의 자녀 출산부터 양육 결정, 현재까지 경험을 살펴보았다.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복합적인 압력과 극복전략은 물론 창업의 조건, 성장 그리고 결과 등을 모성권, 노동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비혼모들의 주체적 삶을 높일 수 있는 법적 함의와 함께 사회복지 차원의 구체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기업가 정신

기업가는 자기고용, 사업의 소유자나 운영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김영진·김상표, 2015; 신윤정, 2021). 이에 비해 기업가 정신은 자기 사업을 설립하고 소유하는 심리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행동과 과정을 본다. 각 개인의 기회를 식별하고 창조,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기업가 정신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Ishak et al., 2021; Mohd et al., 2021). 기업가 정신은 Schumpeter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Schumpeter는 기업가 정신, 자본주의 진화에 주된 주장으로써 기존 기술의 진보와 창조적 타계, 이로 인한 시장의 동력이 경제 성장이 원동력으로 주장할 수 있다(김영진·김상표, 2015; Aghion, Akcigit & Howitt, 2015).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먼저 기업가 정신을 일종의 접근방법(Bennett & Dann, 2000)으로 보거나 Timmons & Schumpeter는 사고, 추론, 행동 방식이자 가치 추구 목적의 균형 잡힌 리더십으로 정의하였다(박재춘, 2019).

반면, 그 외의 연구자들은 긍정심리이론으로 기업가 정신을 설명하고 있다. Frank Knight는 1921년 기업가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기질(Trait)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경우를 들어 이해에 대한 시도를 하였는데 성격심리학과 결합하여 기업가에게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격 특성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연구로 전개되어 왔다. 심리학적 접근에서는 기업가들의 성격적 특성 5요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5요인 모델은 기업가적 기민성(Entrepreneurial alertness), 기업가적 열정(Entrepreneurial passion), 개인적 주도성(Personal initiative), 비즈니스 계획성(Business planning) 과 함께 혁신성(Innovation)으로 알려져 있다(Kerr et al., 2018). 즉, 기업가 정신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예비 창업가가 소비하는 것으로 예비 창업자는 높은 책임과 위험을 감수하며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심리자본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Cantergiani, 2021). 정리하면 긍정심리자본은 경제적 자본, 사회적, 문화적 자본을 뛰어넘는 것으로 현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과 도전,

발전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Kerr, Kerr & Xu, 2018; Chetty et al., 2022: 113). 개인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찾는 것은 긍정심리자본이라 할 수 있다(Luthans et al., 2011).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불안정한 미래를 우울보다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며 개인의 삶의 목표 달성, 성취에 필요한 자원이다(Muringani, Fitjar & Rodríguez-Pose, 2021; Ishak et al., 2021; Huq, Delaney & Debney, 2022). 또한 긍정적 사고를 활용한다면 조직은 물론 개인 또한 높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은 회복 탄력성, 낙관성, 희망이 구성 요인으로 회복 탄력성, 역경,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성장하려는 마음의 활동을 의미한다(임진혁·권혁, 2021; 한미경·하규수, 2021).

기업가 정신의 개념은 개인 차원에 의해 분석 가능하다. 이재석과 이상명(2020: 4-5)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을 주인 정신, 도전 정신, 미래 지향, 성취, 책임, 마니아 정신 등의 7가지 핵심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7가지 핵심 요인은 '스스로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춘우, 2019; 한미경·하규수, 2021). 국내·외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기업가 정신은 창업에 따르는 불안과 실패 등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키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혁신을 기초로 창업이라는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비혼모 기업가정신과 창업

비혼모를 대상으로 수행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사회참여의 제한(박동진 외, 2017; Huq et al., 2022)과 비혼모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다(변호순·최정균, 2016; 강라현, 2019; Harkness, 2022). 한국사회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중시되고 부계혈통주의는 과거의 문화적 잔재로 인식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혼모들은 성 관념이 희박하고 삶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기표가 남아있다(신필식, 2017; 정지연·이미정, 2020).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학력, 전문직 여성도 비혼 상태에서 출산 전·후 시기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보고된다(강라현, 201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혼모의 삶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연속으로 감수해야하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적 잣대로 예측하기 어렵다. 비혼모의 삶이 취약함으로 시작되어 난관을 극복하고 주체적으로 성공한 삶으로 귀결되는가는 개인의 특성, 보유한 자원, 젠더적 정체성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비혼 여성이라는 위치에서 출산·양육·입양을 결정함으로써 사회문화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직업활동의 의미는 비가시화되었다. 이는 비혼모라는 대상을 비정상적인 모성을 가진 양육자, 사회복지수혜자로 치부할 뿐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권리주체에서는 제외되었기 때문이다(권혜원, 2021; Hyde, 2000; Onilewo,

2021; Leonard & Kelly, 2022; Aranda et al., 2023).

비혼모의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보고된 연구는 찾기 힘든 실정이나 일부 연구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출산 전,후 시기에 비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했으나 퇴소 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자 직업훈련을 받거나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이탈될 수 없는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생계부양자, 양육자로서의 이중고를 주로 다루고 있다(박동진 외, 2017; 장운정, 2017). 반면, 비혼모의 경제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구직활동, 자립 시도 과정을 넘어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환경, 직업 유형, 가족관계 등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받는 직업 활동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은 비혼모들에게 가해진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이지만 많은 장애요인이 따른다. 이러한 장애를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으로 극복하는 것에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비혼모들이 당면한 사회구조적 요인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사회적, 가족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를 통해 양육자원의 부채를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정리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모집과 선정

연구자는 비혼 여성으로서 자녀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비혼모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와 현재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비혼모 자조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혼모 2인을 직접 만난 후 기준표집(Criterion Sampling)으로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혼 여성으로서 자녀 출산, 양육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거주를 유지하고 있는 비혼모로 『한부모가족지원

법』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둘째, 현재 직업 활동과 자녀양육을 병행하고 있는 비혼모로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 셋째, 자신의 직업 활동에 있어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구술(Story telling)이 가능해야한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경험 여부는 연구 참여자의 판단을 존중하였다. 단, 연구 참여자 선정에 제외되는 기준은 첫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둘째, 현재 직업 활동과 자녀양육을 병행하고 있으나 창업 준비 경험 또는 창업 경험이 없는 경우이다. 연구 참여자 모집과 선정을 위해 위와 같은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비혼모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비혼모 2인과 비혼모 지원 단체 관계자 1인에게 연구 목적, 취지 등이 포함된 연구 계획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동시에 연구자는 비혼모, 한부모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문 게시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였다. 그리고 Patton(2014)이 제안한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비혼모 2인, 비혼모 지원 단체 관계자 1인으로부터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며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비혼모를 소개받았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모집과 선정 기간은 2022년 1월 2일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자녀 출산, 양육을 결정하였으며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경험이 있는 비혼모 5인이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업 활동 경험 관련 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자료수집

자료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비혼모 5인들과의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자료의 포화상태를 고려하여 출산 전부터 현재까지 시설 입·퇴소 경험 없이 자녀와 지역사회 거주를 유지하고 있는 비혼모들의 자녀 출산-양육-창업 활동 경험, 기업가 정신을 포괄적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업 활동 경험 관련 사항

연구 참여자	연령	학력	동거가족	자녀 성별/연령	직업		창업 유지기간
					출산 전	출산 후	
1	20대	대졸	자녀 1	여/미취학	사무직 (정규직)	개인생활 서비스직	4년 7개월
2	30대	고졸	자녀 1	남/10대	서비스직 (무기 계약직)	개인생활 서비스직	16년
3	30대	대학 자퇴	자녀 1	남/미취학	서비스관리직 (정규직)	서비스 관리자	3년 9개월
4	40대	대졸	자녀 1	남/10대	학생	전문직	6년
5	30대	대학 자퇴	자녀 1	여/10대	서비스관리직 (정규직)	서비스 관리자	8년

※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연령, 학력 등은 단순화하였다.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연구 수행 전 연구 참여 의사를 전달한 비혼모들을 만났으며 일대일 심층면담시 구술되는 대한 내용은 녹음되며 24시간 내에 문서로 전사된다는 사항 등을 고지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일대일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비혼모 5인에게 연구 목적, 연구 과정, 녹음 여부에 대한 동의 등이 포함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필서명을 획득한 다음 이루어졌다. 일대일 심층면담 기간은 2022년 3월 2일부터 2022년 10월 30일까지였다. 연구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거주지, 거주지 주변 카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 1인당 5회, 평균 60분이 소요되었다.

3. 자료 분석

연구자는 Colaizzi(1978)가 제안한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대일심층면담으로 수집된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 자료와 음성녹음파일을 비교하며 10회씩 정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혼 여성으로서 자녀 출산-양육 결정, 창업 경험, 기업이 정신과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부분을 분절하여 구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를 작성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들의 경험을 주제별로 분절하여 개별 주제(Theme)를 명명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개별 주제들 중 공통성 차원에서 주제를 결집(Theme cluster)하여 보다 추상화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구조화하기 위해 범주(Category)로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경우 지역사회거주 비혼모들의 임신갈등 극복, 창업의 계기, 창업 성공 경험을 통해 그들의 공통된 경험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4. 연구의 윤리적 문제와 엄격성(Rigor) 제고 전략

1) 연구의 윤리적 문제

연구자는 연구 수행 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연구 윤리 교육을 이수하였다(No: 2021-007090). 연구 윤리 기준이 포함된 연구계획서, 모집공고문과 설명문,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규정에 따라 수정, 보완과정을 거쳤다. 해당 연구에 대한 최종 승인 통보(No: P01-202112-22-005)를 받은 다음 연구를 게시하였다. 본 연구의 윤리적 문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되었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한 의사를 밝힌 비혼모를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연구 목적, 취지, 기대효과,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불이익, 중도철회, 탈퇴 권리 등의 전체적인 연구 수행 과정을 설명하였다. 둘째, 자료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의 일대일 심층면담으로 수집되며 모든 내용은 녹음, 문서화 처리된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목적 이외에

2차 자료로 가공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본 연구 수행 종료일까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보호와 비밀 보장을 우선시하였다. 셋째, 연구자는 최종 선정된 5인의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에 대한 자필 서명을 요청하였으며 모두 회수하였다.

2) 엄격성(Rigor) 제고 전략

연구자는 연구의 엄격성을 제고하기 위해 Padgett(2016)이 제시한 연구 참여자들을 통한 확인(Member check), Creswell(2007)의 장기간의 라포형성, Flick(2018)의 동료지지 집단을 구성하여 접근하였다. 먼저, Padgett(2016)의 제안에 따라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종료한 다음 최종 연구 참여자 5인에게 분석결과에 대한 확인(Member check)을 요청하였다. 연구자는 최종 연구 참여자 5인을 직접 대면하여 연구자의 자료 분석 결과, 공통성 차원의 주제결집에 대한 확인을 위해 각 2회씩 교차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비혼 여성으로서 출산, 양육 결정은 갈등의 연속이었고 직장 퇴출로 경제적 압박과 양육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구술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맨 땅의 헤딩으로 시작한 창업'으로 주제를 구성했으나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인생 제로(Zero) 그라운드에서의 시작'으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대비하여 현상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이나 주관적 판단보다는 연구 참여자 5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둘째, 연구자는 Creswell(2007)에 따라 연구 수행 전부터 비혼모들과 평균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기적인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 참여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 연구자의 편견과 선입견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Flick(2018)의 제안을 바탕으로 비혼모 자조모임 참여자 2인, 비혼모 지원 단체 담당자 1인으로 동료지지집단을 구성하였다. 연구자와 동료지지집단은 연구 승인일로부터 연구 게시, 연구 종료일까지 전반적인 연구 수행과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그들은 연구 참여자들과의 일대일심층면담으로 수집된 자료, 분석결과 등에 대한 진실성 유지,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 오류를 방지하였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제도, 사회복지정책과 행정적 측면의 제언 등과 같은 통찰력 있는 지식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IV.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 경험을 바탕으로 53개의 주제와 10개의 주제결집이 나타났다. 이러한 주제결집이 이루어진 자료들 임신갈등 극복, 창업의 계기, 창업 성공 경험의 범주로 재배열하였다. 본 연구의 범주, 주제결집, 주제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주제결집(Theme cluster)

범주 (Category)	주제결집 (Theme cluster)	주제 (Theme)
임신갈등 극복	생명단절의 압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족의 의견과 낙태중용 - 출산 당일까지 친생부자 관계를 거부하는 자녀 친생부와 자녀 친생부 가족 - 원가족과 자녀 친생부, 자녀 친생부 가족이 연대하여 낙태를 요구함 - 낙태를 강요하며 폭력과 협박을 일삼는 자녀 친생부 - 가장이 되어 책임지겠다던 자녀 친생부의 행방불명 - 자녀 친생부와 원가족 간의 합의로 압표 거래처럼 이루어진 해외입양 수속 -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입양 동의서 서명 동시에 입양 대기자
	축복받지 못한 생명을 떠맡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궁핍 속에서 출산 결정 - 목숨을 담보로 만난 생명 - 악마의 저주가 아닌 축복을 기대하며 입양 동의 철회 - 신이 보내준 선물로 받아들이며 양육으로 보답 - 출산 감행은 내 삶의 용기인 동시에 족쇄 - 고민 끝에 출생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후 출생등록 완료
창업의 계기	낙인과 기회의 박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보다는 편견으로 보는 세상 사람들 - 비혼모라는 사회적 기표에 내가 가진 가능성은 영원히 사라짐 - 과거 경력과 전문성은 고려되지 않음 - 고학력자도 차별의 대상 - 직장에서의 강제 추방 - 매출 1위 사원이지만 인사사고과 점수는 마이너스(Minus)라는 아이러니(Irony)
	기본 생활 유지 불안과의 동고동락(同苦同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혼모-부자 거점기관, 자활센터 이용자로 전락 - 대접받는 정규직 직원에서 기약 없는 대기조 신세 -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낮선 분야에서 이방인이 되어 버터내기 - 아이와 함께 중위소득 경계선을 지킴
	인생 제로(Zero) 그라운드에서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으로 일하며 도제식으로 기술습득 - 타투라는 새로운 영역의 발굴과 자기 주도적 학습만이 살 길 -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조리기술 연마 - 나의 살 길은 전문적이라는 신념으로 학업을 마침 - 고객센터에서 배운 고객관리 기법을 접목한 창업 도전
창업 성공 경험	일과 양육, 줄다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우선순위는 경제적 여유 - 자녀 양육과 일의 미분리 - 돈 벌기, 아이 키우기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음 - 현실은 돈, 미래는 나와 아이 - 양육과 일의 이중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음
	지원보다는 나의 능력에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가 있는 주변 도움보다는 나의 능력 개발에 매진 - 사회적 연민을 거부하고 홀로서기 - 버림받은 여성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여성이라는 정체성 - 일하는 엄마, 능력 있는 여성이라는 자긍심 - 수급자 지위를 탈피하고 조기 탈수급
	신용 자본의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주의 지원으로 창업 자금 용자 - 주변인들로부터 보증수표라는 평가를 받음 - 내 아이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창업 - 자녀와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고객관리에 매진 - 목숨과 비견되는 신뢰관계 유지
	동반 성장 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미용봉사 - 시설 거주 비혼모-부자 가족의 자립을 위한 기부활동 - 비혼모, 비혼부들의 직업 알선과 기술 교육 - 비혼모와 함께 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 설립 준비 - 모교의 강사로 출강하며 재능기부 - 지역 내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이익 공유
벼랑 끝에서 만난 무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판한(擔板漢)보다 조갑(鳥蹶)의 시선을 가진 운영자 되기 - 과중한 빚 독촉의 압박을 받던 채무자에서 성실한 세금 납세자로 재기 - 함께 살기 위해 도전한 창업 준비생은 스타트업(Start Up) 컨설팅 전문가로 자리매김 - 내외불이(內外不二)같은 일상이지만 나만의 경력 만들기

1. 임신갈등 극복

1) 생명 단절의 압력

비혼 여성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결정은 원가족, 자녀 친생부, 자녀 친생부 가족에게 용납되지 않은 상황으로 외면 받았고 낙태중용, 해외입양 권유, 자녀 친생부자 관계 거부 등으로 표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 사실을 인지하기 전부터 자녀 친생부와 결혼을 약속하거나(참여자 4, 5),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가(合家)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참여자 2, 3, 5)하고 있었다. 참여자 1은 출산 후에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자는 자녀 친생부의 말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출산 준비를 하였으나, 자녀 친생부는 출산 이외에 비용은 책임질 수 없으며 출산 동시에 자녀를 입양 보내라는 통보를 끝으로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라고 했다. 때로는 원가족의 지지를 기대할 때도 있었다. 일부 참여자들의 구술에 따르면 원가족과 자녀 친생부, 자녀 친생부 가족이 연대하여 낙태를 요구하거나(참여자 2, 3, 4) 출산 예정일이 임박했을 무렵에는 입양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하며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고 태어나지 않은 자녀에게까지 퍼붓는 비난은 “목 조르는 느낌”(참여자 2)으로 기억되고 있다. 참여자가 출산 후 양육을 결정할 것을 대비하여 국내 입양보다는 “영원히 자신의 자녀를 찾을 수 없는”(참여자 3) 해외 입양 절차 수속을 “비밀리에 진행”(참여자 5)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

“아기 심장이 뛰고 있고 이미 성별도 다 아는 마당에(중략) 그 ○○(자녀 친생부)가 그 집 부모까지 대동해서 찾아왔어요. 그저 자기들 쪽팔리니까 저희 엄마까지 한패가 되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대책 없이 낳아서 피 말릴 거면 당장 지우라고 했어요.”(연구 참여자 4)

“출산한지 이틀 쯤 됐을 때 ○○(입양기관명)에서 여자 둘에 남자 하나였다. 거기 직원인가봐요. 병원 주차장 앞에서 (해외 입양 동의서) 싸인 하라고 (중략) 아버지(연구 참여자 2의 아버지)는 정들기 전에 당장 데리고 가라고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되는데 뭐 그러냐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연구 참여자 2)

일부 연구 참여자(참여자 2, 3, 4, 5)는 자녀 친생부에게 임신 사실을 통보했던 시기부터 낙태, 해외입양을 종용받았고 신체적 폭력과 협박, 폭언을 무차별적으로 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 출산, 양육결정 이후 자녀 친생부들은 『민법』 제 860조에 근거한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비 미지급, 위장 전입, 연락 두절, 자녀와의 친생부자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관적인

답변을 하며 친생부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날짜 계산 다시 해보라고 그 ○○(자녀 친생부)는 다른 남자 종자 아니냐고 우기고 (중략) 만약에 아이 낳으면 해줄 것도 없고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중략) 그러다가 경찰 오면 한동안 안 왔어요.”(연구 참여자 3)

2) 축복받지 못한 생명을 떠맡음

연구 참여자들은 원가족은 물론 자녀 친생부, 자녀 친생부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나 지지를 기대한다는 것은 “뽕구름 잡는 소리”(참여자 2)에 불과했다. 비혼 여성으로서 임신 사실 고지는 자녀 친생부의 책임 회피, 원가족의 낙태 중용, 해외입양 강요뿐만 아니라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직장 퇴사 권유, 승진 명단에서 제외되는 등 상식 밖에 들발 상황은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결국 일부 참여자들은 직장 퇴사를 결정하였다. 참여자들은 직장 퇴사 이후 경제적 어려움의 압박을 겪으며 축복받지 못한 현실을 예견했지만 출산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출산 후 “아무도 찾지 않는 병실 구석에서 고독”(참여자 1)은 물론이었고 자신의 자녀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존재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아이를 볼 때면 출산의 기쁨, 감사함 보다 자신과 아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초라”(참여자 4)하고 “비참”(참여자 2)했던 감정이 앞섰다고 한다.

“내가 아이 출산할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모아둔 돈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중략) 출산은 했지, 아예 일 자체를 못하니까 (중략) 겨우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 밀린 세금, 병원비 내고 나니까 정작 쓸 돈이 없었어요. (중략) 그 빌미로 연락하면 ○○(자녀 친생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모른다, 알아서 하던가, 협박하지 말라고 하지를 않나 그런 소리 들으면 약 털어먹고 죽어야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연구 참여자 1)

일부 참여자의 원가족, 자녀 친생부, 자녀 친생부 가족들은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저주, 악담을 퍼부었다. 때로는 “뚫어내지 못하는 족쇄와 다름없는 결정”을 했던 과거를 후회하며 자책(참여자 2)할 때도 있었지만 “악마의 저주가 아닌 다가올 축복을 기대”하며 입양 동의 철회(참여자 3)를 했다. 참여자들은 “승진의 걸림돌”(참여자 2)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참여자 1)로 태어난 삶의 “기적”(참여자 5), “신의 선물”로 받아들이기까지(참여자 4) 수많은 고민 끝에 주체적 결단을 내렸다. 그 결과 비록 출생신고 지연 과태료는 부과하였지만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하여 “함께 살아내어야 하는 존재”(참여자 5)로 자리 잡고 있었다.

“출산 전까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는 잘 듣는 학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는 칭찬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다지 잘난 삶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비혼모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까지도 안 했고요. (중략) 내가 아이 키운다고 말한 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용기를 낸 것이었어요.”(연구 참여자 5)

2. 창업의 계기

1) 낙인과 기회의 박탈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 양육을 하기 위해 일을 시작해야만 했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비혼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능력보다 편견”(참여자 1)으로 개인이 가진 가능성을 “영원히”(참여자 2)사라지게 만드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참여자 5는 “매출 1위 사원이었지만 인사 고과 점수는 마이너스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는 납득할 수 없었지만 퇴사 강요는 곧 수입이 없어진다는 두려움으로 항의나 문제제기는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들은 비혼모라는 이유로 사회적 낙인, 편견에 둘러싸여 직업인으로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잃고 있었다.

“한 분야에서 일한지도 오래되었고 전문직이라고 하는 알만한 ○○(직장명)에 다녀요. 어느 순간부터 말에 살이 붙어서 희한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하니까 출근 자체가 두려웠어요. (중략) 당시에 거래처에서도 비혼모? 싱글맘이라고 해서 불편하다고 했다던데 이해가 안 되는 ○같은 소리인거죠. (중략) 2차 면접만 보면 동종업계라서 그런가. (중략) 내놓고 말은 안하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었으니까 답 나오잖아요.”(연구 참여자 2)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아이를 출산 전 부터 고학력자(참여자 4), 전문직(참여자 1)에 종사했던 여성도 있었다. 하지만 비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학력,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개인적 능력은 무의미했고 더 이상 직업 활동 또한 유지할 수 없었다. 그들의 직장에서는 사직서를 쓰게 만드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연출”(참여자 1)하는 “차별의 대상”(참여자 5)으로 전락했다. 결국 “알 수 없는 따돌림”(참여자 2)을 견디지 못해 퇴사를 결정해야하는 현실의 벽 앞에서 무참히 무너지고 있었다.

“미(비)혼모라던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그저 그런 여자 아니냐? (중략) 성적 농담하면 받아 줘야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이

라는 건 (중략) 이렇게 되기 전까지, 딱 거기 까지였어요.”(연구 참여자 4)

2) 기본 생활 유지 불안과의 동고동락(同苦同樂)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출산과 양육 결정 전·후로 고용자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거나 퇴직을 결정해야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치”(참여자 4), “감정 낭비”(참여자 1)였다. 과거 정규직, 무기 계약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정 급여, 대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다. 결국 기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일상이 반복되었다. 당시의 기억을 회상할 때면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조 신세”(참여자 5)였고 매월 찾아오는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의 심정으로 “낯선 분야에서 이방인”이 되어 버텼다고 한다(참여자 3). 이들은 자녀와 함께 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며(참여자 2) 중위소득의 경계를 오갔고 일정 기간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할 때도 있었다(참여자 2, 3, 5). 참여자 1은 실업급여가 고갈될 무렵 찾게 된 지역 내 비혼모·부자 거점기관, 자활센터의 이용자로 전락했다는 자신의 처지를 잊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에 근무했는데 (중략) 그러면 뭐하겠어요. 남들은 살만해서 그런 소리 하나고 비웃을 수도 있는데요. (중략) 퇴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미혼모인 게 말이 되냐? 한 번씩 생각나거든요. (중략) 거기 직원들은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하겠지만 나로서는 아직도 눈물만 나오요.”(연구 참여자 1)

3) 인생 제로(Zero)그라운드에서 시작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력과 학력을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시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기회가 있다면 도전하고 있다. 비혼 여성으로서 자녀 출산 결정,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현재까지 원가족의 지원이나 자녀 친생부와와의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자녀 친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 양육비 지급 판결 명령을 받았으나 과거 양육비에 대한 일부 금액만 지급 받았을 뿐, 이후 양육비는 지급 받지 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참여자 2, 3, 5).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원가족이나 자녀 친생부에게 기대하기 보다는 직장 퇴사 이후부터 겪게 될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직장 퇴사 결정은 자신과 자녀 양육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동반하였고 때로는 국가의 긴급생계비지원(참여자 5), 비혼모·부자 거점기관에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거나(참여자 2, 5) 주변 지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참여자 1, 3, 5)을 요청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 노하우, 경력을 살리기 위해 자녀 양육과 학업,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고 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전문 기술 습득이라는 공

통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사무, 회계 보조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참여자 1은 비정규직, 계약직보다 못한 처우를 했던 직장 상사, 거래처의 눈치 보지 않고 자녀 양육과 고정 수입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는 것이 빠를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미용 기술을 배웠다. 인턴 보조, 인턴 생활을 하며 경력을 쌓기 시작하여 현재 개인 샵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불법 시술에 포함되는 타투(반영구 시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 2는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자녀를 데리고 전국을 다니며 유명 타투 기술자들의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향후 2년 내에는 예약이 불가능한 프랜차이즈 1인샵의 대표이자, 예술성을 알리고자 10년 넘은 “배테랑”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자녀 이름) 낳고 2개월 됐을 때부터 통장에 잔고가 없었어요. 돌아서면 돈 나갈 때고 (중략) 방세 내고 대출 이자하고 공과금 빠져나가면 이십사만 얼마 있었으니까요. (중략) 낮에는 알바하고 저녁 되면 나가서 보조스텝 구한다고 하면 어깨너머로 보고 (중략) 오래할 때는 가만히 있어도 손이 떨릴 정도였으니까 (중략) ○○(예명)가 시술 고객 소개해주는 날 부터 돈을 만질 수 있었지 그 전까지는 눈물 콧물 짜면서 혼나기도 많이 났어요.”(연구 참여자 2)

연구 참여자 3과 5는 비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정규직으로 전문 서비스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에서 전문 기술 자격증 취득은 취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며 자녀와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채용을 고수하기보다 비정규직,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했던 당시의 기억을 자신과 자녀가 함께 ‘살아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들은 ‘당연한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구술하고 있었다. 참여자 3과 5는 자녀 양육 전에 종사했던 직종, 경력과는 무관한 직종에서 직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참여자 3은 전문 서비스 관리 업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 내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조리사 자격증 취득, 창업 지원을 받아 음식 서비스 관련 창업(참여 3)을 하였고 현재는 비혼모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다. 직장을 퇴사한 날 부터 자녀 양육 이외의 시간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즉시 현금 수입 창출이 가능한 명절기간 내 상품 판매일, 대리운전, 식당 서빙 등과 같은 업종에서만 근무했던 참여자 5는 투잡, 많게는 쓰리잡을 했었다. 그 당시에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고 아르바이트 생애 불과했으나 현재는 참여자 5의 거주지 근처 비대면 운송 관리 서비스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때 ○○(참여 3 자녀 이름)은 어렸고 누워있을 때까지는 투잡 뛰고 운 좋으면 쓰리 잡까지 했어요. 돈

앞에서는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알바 자리 생기면요 바로 가서 면접보고 당장 일 시켜달라고 했어요. (중략) 지금은 아침 이혼시 반부터 운송 업무 처리하고 나면 전국에 동종업체들 중에서 사무실 규모는 제일 작는데 매출은 탑 쓰리에 듭니다.”(연구 참여자 5)

4) 일과 양육, 줄다리기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 활동과 자녀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과업은 두 가지인 동시에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이 하려고 노력했지만 직장 퇴사, 자신과 자녀를 향한 부정적 시선, 편견 등의 현실과 맞닥뜨릴 때마다 좌절했고 위축을 경험할 때도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비혼모, 법적 혼인관계가 성립된 부모가 키우는 자녀 또한 기본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우선순위’(참여 1)가 되어야만 자녀와의 삶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에게 직업 활동이 곧 양육이었고 ‘어느 것도 포기’(참여 2)하거나 ‘놓을 수 없기에’(참여 3)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친생부는 참여자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출산 감행, 해외 입양 의사 철회 결정에 대한 반감을 협박, 폭력으로 감정을 표출했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들에게 자녀 친생부라는 대상은 함께 하게 될 ‘미래의 계획’(참여 3)을 세우며 결혼을 약속한 남자(참여 1, 4), 한 때는 사실혼 관계(참여 1, 2)를 유지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연인’(참여 5)이자 ‘친생부자관계를 거부하는 생물학적 아이 아버지’에 불과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남성의 아이를 출산, 양육하는 여자로서 자녀 친생부의 부재를 향한 주변의 시선, 편견을 감수하고 있었다. 그 때마다 직업 활동과 자녀 양육을 해내야 하는 이중고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태까지 도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히 편견과 함께 따라 다녔지만 그 속에서 ‘희망’(참여 5)을 발견했고 ‘삶의 의미’(참여 4)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집들 보면 사니 못 사니 하는 이유야 많겠지만 돈 있으면 없던 사랑도 생기고 아이들끼리도 보는 눈이 달라요. (중략) 물론 먹고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낳으라고 했냐고 하는 ○한테 언제까지 양육비 달라고 구걸하는 것도 한 때지 (중략) 내 돈으로 잘 키우는 게 속 편해요. 주변 사람들 중에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냐 묻거든요. 그 때마다 저는 돈이 있어야 쓰레기 같은 아빠라도 만나지 그렇게 하려고 내가 자격증 공부하고 ○○(참여 3이 운영하는 업체명) 차려서 돈 벌고 우리 ○○(참여 3의 자녀이름) 공부도 빠르게 시키는 거 아니겠냐고 대답해요.”(연구 참여자 3)

참여자들은 자녀 출산 전후에 직장퇴사를 강요받은 경험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자녀 양육 결정과 동시에 원가족, 자녀 친생부,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거부, 회피를 견딜 수 없었던 참여자들은 장기간 종사했던 직장에서는 퇴출되거나 퇴사를 결정하였다. 그 당시 현실적인 문제들 중에 자신의 의지로 자녀 양육을 결정했으나 경제적 형편 여하를 막론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의 비난보다 고통을 주었던 경험은 '경제적 압박'이었다. 과거 '돈 걱정 없이 살았던 그 때의 그리움'(참여자 1), 연봉 협상(참여자 5), 초고속 승진(참여자 2), 스카우트 제의는 '영광에 불과했고'(참여자 3),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공과 무관한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해야 했던 기억은 '처절함'(참여자 4)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직장 퇴사 이후 주기적인 수입은 사라졌고 책임져야 하는 자녀와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 지출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한 상황은 자녀 양육 결정으로 감수해야 하는 '당연'(참여자 4)한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지만 '숨 막히는 시간'(참여자 2)으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참여자 3)였다. 그들은 직장 퇴사, 자녀 양육 결정을 하면서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전을 시작하였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참여자 4)하고 '도망'(참여자 2)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투자했던 시간은 '희망'(참여자 1)이었고 '새로운 영광'(참여자 3)이 되고 있었다. 참여자 4는 '온실 속 화초에서 길가의 잡초'로 성장한 자신을 발견했고 주변의 도움 없이 '돈을 벌기 위해 뛰어들었던 열정'(참여자 2)이 있어 과거 초고속 승진의 기쁨보다 더 큰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과거 종사했던 직종과는 다른 직업군으로 창업을 했고 경제적 압박에서는 조금씩 벗어나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자녀와 함께 하는 '미래'(참여자 4)를 그리고 있었다. 그들은 비혼 여성으로서 자녀를 출산했지만 혼인 여부, 자녀 친생부의 부재보다 자녀가 갖는 존재 의미는 '기쁨'(참여자 2)이자 주변의 시선, 편견,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힘'(참여자 5)이었다. 가끔은 자녀 친생부와 유사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면 '눈이 둘 정도'(참여자 1)로 감정 조절이 힘들 때도 있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신과는 다름을 이해할 수 없어서 '죽었다'(참여자 2), '얼굴도 모르는 사람 찾지 마라'(참여자 4)는 반응으로 대처하거나 '화제를 전환'(참여자 5)하고 있었다. 이들이 지금까지 희망을 지닐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꼽자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미래, 자신과 자녀가 성장하는 그 날에 대한 기대만큼은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장 분유, 기저귀는 거점기관에서 도와줬지만 계속 그렇게 사는 건 죽어도 싫고(중략) 저팻딩이(연구 참여자 3의 자녀)를 데리고 닥치는 대로 일만 했어요. (중략) 몸은 힘들고 손님들한테 하도 시달리는데 수도, 가스 끊겨서 독촉 받을 때니까요.(중략)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자녀 친생부) 자주했던 말을 아이가 해서 눈이 완전 돌아서 생긴 처음으로 심하게 혼냈어요. (중략) 결국 돈에 쪼달리면 (경제적으로 힘들면) 이 사달이 나는구나했어요."(연구 참여자 3)

"나 때문에 세상에 있는데 저 아이도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지 나를 엄마로 하고 싶었잖어요? 힘들 때는 돈 벌어야지 하면서도 한 때는 죽고 싶을 때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구요. (중략) 나랑 끝까지 함께 가야하는 아이를 두고 미래까지 포기하는 건 아니라고 마음 고쳐먹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연구 참여자 4)

3. 창업 성공 경험

1) 지원보다는 나의 능력에 의지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한부모가족 뿐만 아니라 비혼모·자 가족에게 교육, 주거, 생계지원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사회적 도움에 의지하기 보다는 자신의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었다. 국가와 사회적 지원은 시설입소 보다 지역사회에서 출산, 자녀 양육을 결정했으나 '직장 퇴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참여자 1, 2, 3, 5), 긴급한 상황에서의 '위기 모면'(참여자 2, 5), '적절한 법적 대응'(참여자 1)을 도왔던 비혼모·부자 거점 기관과 지자체 행정기관 담당자들에게는 '값아야하는 빛'(참여자 1)으로 '고마움'(참여자 5)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대상으로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지원금은 연령 제한이 있지만 일정기간동안 자녀와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참여자 2는 '영원히 수급비'에 의지해서 살기 보다는 아직은 '일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참여자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은 '사회서비스'(참여자 4)나 '지원금'(참여자 2)은 자신보다 힘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구술하였다. 그들은 국가의 사회적 자원에는 한계가 있기에 무한한 것은 자신들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참여자 1, 3), '일을 해야 하는 이유'(참여자 4)뿐이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참여자들이 사회서비스, 지원금,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대상자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한정된 사회적 자원에 의지하여 '일을 하지 않거나'(참여자 1) 자녀 또한 '사회복지수급자가 되는 대물림'(참여자 5),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받는다'는 소리(참여자 3)를 듣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개발'(참여자 1)하고 현재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비혼모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남성에게 버림'(참여자 3)받은 여성인 동시에 '연민의 시선'(참여자 2)으로 참여자들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자신을 '홀로

서기(참여자 2)를 시작했고 ‘내 힘으로 개척’(참여자 3)하여 ‘일하는 엄마, 능력 있는 여성’(참여자 4)으로 자긍심을 가질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참여자 1),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참여자 3)을 가진 존재로 평가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5는 ‘비혼모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타인의 편견을 깨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현재는 ‘탈수급’(참여자 5)과 동시에 주변의 도움과 지지보다는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비혼모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도 편견인지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요.(중략) 재산상속은 못해 줘도 엄마도 수급자, 새끼도 수급자로는 안 만들어야지. 수급자는 그만하자 그러고 한 사년동안은 애기가 입원한 삼일 빼고 과일 덤핑 알바도 가고 모텔 청소도 하러 나갔어요.(중략) 그 돈 모아서 사무실 내고나니까 탈수급자 확인 전화 받고(중략) 기분은 좋았어요.”(연구 참여자 5)

참여자들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은 자녀 양육을 비롯하여 필요에 따라 경제적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제공된다는 점을 들어 일정기간 동안 지원 받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회적 지원과 도우미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나약한 인간’(참여자 2)으로 전락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국가 차원에서의 도우미는 양가적이며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도우미가 되지만 의존하는 습성이 생기기 되면 빈곤의 덫에 빠질 경우를 우려하고 있었다.

“○○(참여자 1의 자녀 이름) 낳고 돈 문제가 있었고 법적으로 해결하느라 이리저리로 시달렸거든요. 그때 구청에서 도움 받고 급할 때는 긴급 보육도 신청하고(중략) 궁지에 몰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도 했어요.(중략) 그래도 계속 의지하다가 재기도 힘들겠다 싶어서 법적 문제 해결하고 일 찾고 전단지 보고 그랬어요.”(연구 참여자 1)

2) 신용자본의 획득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지지에 의존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는 동정, 연민의 시선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직장 퇴사 후 새로 시작한 직종에서만만큼 신용을 얻고 있었다. 참여자 1은 비혼모라는 꼬리표 대신에 ‘약속을 잘 지키는 직원’,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로 통하고 있었다. 그 결과 참여자 1의 고용주는 창업 자금 지원과 프랜차이즈 가맹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금까지 참여자 1의 성실함, 실력의 가치에 투자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으며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종사자이자 대표로서 경쟁 상대이기 보다는 미래를 응원하고 싶은 전문가로 여기고 있었다. 참여자 2 역시 주변 사람들과 온오프라인 활동을 유지하면서 ‘보증수표’라는 평가를 듣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문제에서 만큼은 ‘신뢰관계를 유지’(참여자 5)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자격증 따고 인턴부터 시작해서 실장까지 했어요. 대출 받으려고 제 1 금융권에 가 봐도 신용등급이 바닥이라서 안 되고 (중략) 근데 대표님(참여자 1이 근무했던 샵)이 너는 실력도 있고 고객관리도 잘하니깐 독립 하라는 소리에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사실 막막했어요. (중략) 샵 차리는데 드는 비용은 대출 받게 알아봐주시고 나머지 프랜차이즈 가맹비는 ○천이 나가는데 깎아줘서 완전 거저였어요.”(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3은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직종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였다. 자신이 만드는 음식을 ‘자신의 아이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창업에 도전하였고 현재 창업 자금 지원을 받아 음식 관련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 3은 자신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재료비를 절감해야하지만 ‘엄마’로서 최대한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태의 좋은 재료를 활용하여 검증된 제품을 생산하는 대신, 저렴한 가격을 받는 판매자로 평가 받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4는 신용을 ‘명예’로 표현하였다. 그는 ‘가정교육을 잘하는 엄마’, ‘거래해도 문제없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때면 인간관계에서 신용은 곧 ‘명예’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였다.

“아이 아빠 없이 혼자 키워서 저렇다, 조금만 잘못하면 가정교육을 못해서 그런 말이 나와요. (중략) 저희 아이에게 불이익이 있을 때는 표현은 해야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신용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해요.(중략) 그게 명예이기도 하니까요.”(연구 참여자 4)

3) 동반 성장 철학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지원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는 한편 자신의 창업 성공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온오프라인에서 공유하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비혼 여성의 출산, 자녀 양육은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아야하는 대상이라는 편견을 미약하지만 해체하고 있었다. 또한 과거 사회적 지원, 주변의 도움을 받는 비혼모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 기술을 기반으로 도움을 주는 여성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며 성장하고 있었다. 현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발휘하고 있다. 참여자 4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업 숙려기간을 보내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강의,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었다. 전문기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미용 실기 강사로 활동하며 매달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미용 봉사를 계기로 시설 거주 비혼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기부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자신의 1인 샵(참여자 2)과 음식 서비스 업체에서 운영 노하우를 비롯하여 기술 교육(참여자 2, 3)과 다른 직업 연계(참여자 2)뿐만 아니라 참여자 3은 자신의 창업 경험을 살려 비혼모들이 중심이 되는 예비 사회적 기업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비혼모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결집시키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운영하는 업체 확장을 통해 사회적 기여와 비혼모와 자녀에게 가해진 부정적인 인식을 희석시키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참여자 5는 비혼모, 비혼모 자녀라는 이유로 지역사회,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이 쌓여 지금은 '휴터'로 남아 있다고 하였다.

“동네에 규모가 작은 가게에서 단돈 삼천 원부터 만 원짜리라도 제품이 괜찮으면 입소문 나는 건 시간문제 거든요.(중략) 마음 맞는 엄마(온라인 카페에서 친해진 회원)들하고 아직은 예비 사회적 기업 준비 단계지만요. 일하고 싶고 돈 벌어야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하다 보면 (비혼모, 비혼모의 자녀라고) 무시하던 사람들도 달라지겠죠.”(연구 참여자 3)

반면, 참여자 5는 지역사회가 성장해야 자신 또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자부하기에 자신의 수입 일부를 고객을 연결해주는 주점, 음식점 등의 소상공인들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시설 입소를 권유하기 보다는 출산 후 초기 양육에 필요한 물품,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던 비혼모·부자 거점기관의 '감사함'을 거점기관을 방문하는 비혼모·부자 가족을 위한 정기 후원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숨기기보다는 창업 성공 노하우,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혼모·부자 가족, 한부모가족,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소상공인 등과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고 있다.

“아직까지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불법이구요. (중략) 비혼모, 학생 중에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인생 상담도 해줘요. 혹시라도 고객이 운영하는 회사 알바 자리라도 일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구요. (중략)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연구 참여자 2)

4) 벼랑 끝에서 만난 무한 가능성

비혼 여성으로서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는 동시에 직장 퇴사, 기본생활 유지의 어려움, 경력 단절뿐만 아니라 부정적 시선과 편견 등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수차례의 창업 시도를 했고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무한 가능성”과 마주하고 있었다. 한 때는 감당하기 힘든 빚 독촉에 시달렸던

채무자였으나 최근에는 성실한 세금 납세자로 재기했다(참여자 2). 이들은 낙태, 입양 결정을 철회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 속”(참여자 5)을 아이와 함께 헤매며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자에 만족하기 보다는(참여자 1) 동종 업계의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자 도전을 반복했고(참여자 3) 그 결과 자신의 경력 구축, 창업 준비생에서 컨설팅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참여자 2).

“그 때 ○○(국가명)로 보냈다면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을까 별의별 생각이 들고 앞만 보고 살면 정신병 걸리겠다 싶은 시기가 있었어요. (중략) 아이랑 둘이 살면서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자만하면 안 된다 다시 마음을 잡고 그 이후로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주변을 돌아보고 있어요. 유튜브도 보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배우러 다니고요.”(연구 참여자 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비혼 여성으로서 출산, 자녀 양육을 결정한 비혼모 5인의 기업가 정신에 관한 연구이다. Colaizzi(1978)가 제안한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53개의 주제와, 10개의 주제결집이 드러났다.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강등 극복, 창업의 계기, 창업 성공 경험의 범주에 재배열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결집은 ‘생명단절의 압력’, ‘축복받지 못한 생명을 떠맡음’, ‘낙인과 기회의 박탈’, ‘기본 생활 유지 불안과의 동고동락(同苦同樂)’, ‘인생 제로(Zero)그라운드에서의 시작’, ‘일과 양육, 줄다리기’, ‘지원보다는 나의 능력에 의지’, ‘신용 자본의 획득’, ‘동반 성장 철학’, ‘벼랑 끝에서 만난 무한 가능성’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비혼모들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가들의 성격적 특징을 기밀성, 열정, 주도성, 계획성과 함께 혁신성을 제시했다(Kerr et al., 2018: 323-325).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심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소수자 또는 비혼모들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동반 성장하려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지금까지 수행된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에서 동반 성장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이들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이익 추구, 사회적 기여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동반성장하는 것은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이는 기업의 윤리, 가치와도 직결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출산·낙태, 양육·입양의 양가적 선택지를 두고 원가족,

자녀 친생부, 자녀 친생부 가족에게 폭력, 폭행, 낙태 종용, 해외입양 강요를 받았지만 출산, 양육을 결정하였다. 고학력자, 전문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으나 비혼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직장에서는 퇴출을 강요했고 결국 참여자들은 퇴사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일정한 수입 대신 자녀와 함께 하는 돌봄 시간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비참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긴급 생계비 지원, 물품 지원, 법적 도움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과거 종사했던 직장과 무관한 업종에서 자녀 양육과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시간제 아르바이트, 투잡, 쓰리잡을 병행하며 전국을 다니며 기술을 익혔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학업을 마쳤고 자격증 취득, 자신의 명의로 사업체를 인수했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불안정한 경제 상태의 위험 못지않은 주변의 시선, 편견을 감수하며 비혼모들은 창업을 시도하였다. 창업 성공의 기준은 참여자별로 상이했으나 그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역경, 돌발 상황을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신들의 창업 성공 노하우를 국한 시키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 공유,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반성장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덧붙여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 기업을 성공시키는 요인과 함께 동반성장이라는 윤리에 대한 고찰 또한 필요하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난 동반성장의 윤리성은 생명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비혼 여성으로서 자녀 출산은 출산 계획에 실패한 개인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출산, 양육을 결정한 존재들이다(강라현, 2019). 또한 그들이 가진 생명존중 사상은 자신과 자녀의 삶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타인의 삶을 받아들이는 적극적 수용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비혼모의 동반성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비혼모들의 주체적인 삶의 과정, 경험을 다룬 연구에서는 정상가족 신화에 균열을 내는 존재, 무능력하고 성적 문제를 가진 여성으로 치부한다(신필식, 2017; 이미정 외, 2018; 정지연·이미정, 2022: 128).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사회의 균열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젠더를 초월하여 동반성장이라는 초월적인 목표를 향해 내딛고 있었다.

셋째, 비혼모들의 기업가 정신은 주로 창업의 동기로 설명되었다. 기업가 정신을 지닌 사람들은 창업을 할 경우 실패에 대한 불안, 심리적 위축 등을 자기효능감으로 강화시켜 창업이라는 과업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onard et al., 2020; Fragoso, Rocha-Junior & Xavier, 2020). 하지만 비혼모들의 창업 시도, 결정은 경제적 압박, 자녀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한계 상황에서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해당 직업군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장기간 근무로 경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혼 여성의 출산, 자녀 양육 결정은 직업 활동의 기회 배제, 직장 퇴출을 강요받았다. 결국 비혼모라는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박탈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비혼모는 편견, 사

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직업생활 유지 어려움,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하기 힘든 상황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받고 있었다(이용우·양호정, 2019; 백민정, 2020; 김지현, 2021; Lim, Badiozaman & Voon, 2020). 따라서 그들의 창업은 안정적인 직업 활동의 확보인 동시에 경제적 문제와 자녀 양육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다시 말해 벤처 사업가나 혁신적인 기업가들처럼 새로운 사회를 개척하기보다는 자신과 자녀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의 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전정신, 미래지향, 혁신성과 같은 기업가적 역량을 발휘한데에는 긍정심리자본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긍정심리자본은 희망과 낙관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강혜성·Sandra, 2023; Fragoso et al., 2020; Jones, 2022). 일부 참여자들은 직장 퇴사, 원가족의 회피, 자녀 친생부와의 관계 단절로 경제적 자本是 취약했지만 긍정심리자본을 적극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창업 성공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기업가 정신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드러났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사람들 간의 신뢰와 상호 지지, 사회적 유대 등을 의미한다(Chetty et al., 2022: 111-131; Kysar-Moon, 2022). 사회적 자본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지역경제 성장은 물론 개인의 경제 성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인적 자本是 강화하는 요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 양육, 직업 활동을 병행했지만 경제적 자本是 소유하는데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용주, 고객, 협력업체, 주변 사람 등과의 신용을 지키는 과정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특히 자원 부족, 사회 제도적 인프라가 미비한 환경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최종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이다. 자신의 능력에 의지했기에 주변인들은 상호 관계적 이익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가능성을 믿고 경제적 지원하며 주체적으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었다.

넷째, 참여자들은 고학력, 전문직, 정규직에 종사했으나 비혼모라는 이유로 직업 선택에 많은 장애가 동반되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고용이 불안정한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계약직에 종사할 때도 있었다. 주변의 권유와 일부 지원으로 과거보다 나은 재기를 위한 창업을 선택하였다. 그들이 창업에 성공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가장 큰 목적은 직업 활동을 통한 기본생활 유지와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위함이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일과 가정 양립, 다양한 가족 유형수용 등의 정책적 변화는 있으나 비혼모뿐만 아니라 일하는 여성에 대한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체계는 미비하다(이용우, 2017: 99-121; 이미정 외, 2018; 94-100). 과거와 달리 비혼모의 연령, 기본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양육을 결정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성차별, 경력단절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비혼모 자녀 양육은 여성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강라현, 2019; 김지혜·조성희, 2020).

일부 비혼모들의 사례에 따르면 출산 전부터 우울, 두려운 감정 등을 느끼고 있으며 출산 후에는 자기 비난, 양육 스트레스,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단절의 위축을 호소하며 복합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변호순·최정균, 2016; 고은애·김혜정, 2021; 백윤아·미수현, 2021; 박화옥, 2022). 특히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임신 사실을 고지한 시기부터 직장 퇴사를 통보받거나 원가족, 자녀 친생부와 친생부 가족으로부터 낙태, 입양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단독 출산결정 이후 자녀 양육의 부담을 감수하고 입양 의사를 철회했다. 비혼모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예견했지만 사회적 편견, 비난을 극복하고자 과거 직장 종사자일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부담과 주변의 압박을 안고 창업에 성공하였다고 판단된다. 참여자들은 자녀 친생부의 부재,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친생부와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신의 자녀 양육은 스트레스인 동시에 각자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그들의 선택은 역경, 고통을 발판 삼아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으로 발현되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자원경영학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혼모의 연령, 학력,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모성권, 노동권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사회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과 자녀를 향한 수많은 억압과 비난을 견디며 자신의 삶을 성숙시키고 발전을 시도했고 현재는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혼 여성의 임신은 출산 전부터 양육을 결정하기까지 차별과 부정적 인식은 과거에 비해 희석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다양한 가족 형태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하기에는 공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성차별, 경력단절 등의 사회구조적 요인 속에서 경제적, 심리·정서적 취약성이 중첩됨에도 불구하고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하되 선별적 지원 기준을 구성하여 개별적 욕구, 경력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구직 활동 유도 등을 통한 자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활동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비혼모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통합 돌봄서비스와 지원체계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지자체, 지역사회-민관 단체,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공공과 민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비혼모자가족이 안정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비혼 여성의 출산, 양육 결정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구직활동, 창업 지원금 등을 펀딩, 예산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비혼모자가족의 사례관리를 활성화하여 특성에 따른 조례 마련, 시범사업을 통한 맞춤형 지원모델 및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혼 여성의 출산, 양육 결정 이후 비혼모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자 여부는 결

정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통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혼모 당사자 단체, 자조모임에서 제기하는 욕구(Needs)를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 생애주기, 발달단계에 따른 지원서비스 또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비혼모라는 이유로 직업 활동을 중단하거나 퇴사,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으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창업을 시도했고 현재까지 기본생활을 유지하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비혼모의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창업 준비 단계부터 창업 시도, 자원 확보 과정, 결과까지에 인과적 추론의 모호성을 극복하고자 전향적(Prospective)연구 설계인 종단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덧붙여, 비혼모의 연령, 학력, 지역, 거주환경, 가족관계 등을 반영하여 생애주기, 정착 단계별 문제와 대처전략 등을 살펴볼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라현(2019). 비혼모의 출산·양육 체험에 나타난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지역사회 거주 양육비혼모를 대상으로. 여성학연구, 29(2), 205-236. DOI: 10.22772/pnujws.29.2.201910.205.
- 2) 강라현(2022). 비혼모부자 사례관리실천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비혼모부자 거점기관에 종사하는 사례관리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4(4), 135-175. DOI: 10.22944/KSWA.2022.24.4.006.
- 3) 강혜성·Sandra A. Rigazio-Digilio(2023). 미혼모의 생태 체계적 회복탄력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8(2), 299-377. DOI: 10.17315/kjhp.2023.28.2.004.
- 4) 고은애·김혜정(2021). 미혼모의 임신 기간 중 심리사회적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2), 389-404. DOI: 10.22251/jlcci.2021.21.22.389.
- 5) 권혜연(2021). 시간제 여성노동 연구. 한국여성학, 37(1), 1-38.
- 6) 김영진·김상표(2015). 기업가정신에 대한 새로운 전망: 과정철학과 합생적 기업가정신.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2015(8), 830-864.
- 7) 김지현·권미경·최윤경(2018).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 지원방안(IV):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양육실태 및 지원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8) 김지현(2021). 미혼모의 원가족과의 관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과 차별경험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6(3), 447-463.
- 9) 김지혜·조성희(2020). 미혼모의 자립의지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7), 478-490. DOI: 10.5392/JKCA.2020.20.

- 07.478.
- 10) 박동진 · 김혜성 · 김희숙 · 이설아 · 엄주희 · 권오용 (2017). 베이비박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양육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18(4), 323-372. DOI: 10.15818/ihss.2017.18.4.323.
 - 11) 박재춘(2019). 예비창업가의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의 다중매개역할. *벤처창업연구*, 14(6), 77-90. DOI: 10.16972/apjbve.14.6.201912.77.
 - 12) 박화옥(2022). 영유아 양육미혼모의 사회적 지지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의 다중매개효과. *미래사회사회복지연구*, 13(2), 5-37. DOI: 10.22836/kaswpr.2022.13.2.5.
 - 13) 배종태(2022). 한국의 기업가정신 발전과정. *기업가정신연구*, 3(2), 1-19. DOI: 10.22815/JES.2022.3.2.1.
 - 14) 백민정(2020). 구비문학 속 미혼모와 그의 자녀들을 향한 '폭력' 서사를 통해 본 병리학적 상상력. *어문연구*, 106(1), 123-157. DOI: 10.17297/rsll.2020.106.005.
 - 15) 백운아 · 마수현(2021). 시설 미혼모를 위한 연극치료 질적 사례분석연구-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연기예술연구*, 22, 35-57. DOI: 10.26764/jaa.2021.22.2.
 - 16) 변미정 · 김봉환(2022). 강점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회복탄력성 및 조직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職業再活研究*, 32(1), 21-47. DOI: 10.24226/jvr.2022.4.32.1.21.
 - 17) 변호순 · 최정균(2016). 빈곤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상, 양육스트레스, 아동학대와 방임이 아동의 사회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3, 1-23.
 - 18) 손승영(2020). 해외로 내몰린 미혼모의 자녀들: 배타적 가족문화와 국가의 책임 방기. *담론201*, 23(1), 161-191. DOI: 10.17789/discou.2020.23.1.005.
 - 19) 신윤정(2021).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의 심리학적 접근 연구 동향. *기업가정신연구*, 2(2), 1-35. DOI: 10.22815/JES.2021.2.2.29.
 - 20) 신필식(2017). 197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 본 한국 미혼모 보호사업과 미혼모의 사회적 재현 변화 연구. *한국여성학*, 33(3), 323-357. DOI: 10.30719/JKWS.2017.09.33.3.323.
 - 21) 여성가족부(2023).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http://www.mogef.go.kr/>에서 2023.01. 인출
 - 22) 이동귀 · 강승림 · 박종철 · 이수지 · 손하림(2019). 시설에서 자립을 앞둔 청소년 미혼모의 불안과 욕구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 24(2), 105-124.
 - 23) 이미선 · 김민아(2019). 포토보이스를 통한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의 삶 들여다보기. *한국가족복지학*, 66(8), 5-38. DOI: 10.16975/kjfs.2019.66.001.
 - 24) 이미정 · 정지연 · 구미영 · 정수연 · 김희주 · 박종성 (2018). 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지원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5) 이용우(2017). 한국사회 미혼모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사회정책*, 24(1), 97-115. DOI: 10.17000/kspr.24.1.201703.97.
 - 26) 이용우 · 양호정(2019). 양육 미혼모의 자립과정에 대한 탐색: 자립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0(70), 111-138. DOI: 10.15300/jcw.2019.70.3.111.
 - 27) 이재석 · 이상명(2020). 한국형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이 나모리 가즈오와 김봉진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연구*, 1(2), 1-20. DOI: 10.22815/JES.2020.1.2.1.
 - 28) 이춘우(2019).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의 정의의 통합모형: 직무관점 및 역량모델 관점의 적용. *중소기업연구*, 41(1), 97-129. DOI: 10.36491/APJSB.41.1.5.
 - 29) 임진혁 · 권혁(2021). 긍정심리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영교육학회*, 36(6), 181-216. DOI: 10.23839/kabe.2021.36.6.189.
 - 30) 장은정(2017). 재가 미혼모의 홀로서기 경험 연구: 탈시설 과정을 중심으로. *가족과 치료*, 25(3), 497-528. DOI: 10.21479/kaft.2017.25.3.497.
 - 31) 전정화 · 엄태완(2019). 미혼모의 체험에 대한 현상학 연구. *인문사회* 21, 10(6), 1469-1483. DOI: 10.22143/HSS21.10.6.109.
 - 32) 정미경 · 김승용(2020). 10대 미혼모로 살아가기 사례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4, 57-82. DOI: 10.15300/jcw.2020.74.3.57.
 - 33) 정영수 · 정철호(2023). 사회적 기업가정신 및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8(3), 115-125. DOI: 10.16972/apjbve.18.3.202306.115.
 - 34) 정지연 · 이미정(2022). 미혼모에서 좋은 엄마로 위치하기: 양육미혼모의 낙인 대응에 대한 연구. *젠더와 문화*, 13(2), 115-151. DOI: 10.20992/gc.2020.12.13.2.115.
 - 35) 통계청(2022). 인구총조사: 연령별 미혼모미혼부 시도별. <http://www.kostat.go.kr/>에서 2022.02. 인출
 - 36) 한미경 · 하규수(2021). 기업가정신, 사회적 지지 및 창업멘토링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0), 444-456. DOI: 10.5392/JKCA.2021.21.10.444.
 - 37) 홍양희(2013). 예비 없는 지식, 그 낙인의 정치학. *아시아여성연구*, 52(1), 39-66.
 - 38) Aghion, P., Akcigit, U. & Howitt, P. (2015). The Schumpeterian growth paradigm. *economics*, 7(1), 557-575. DOI: 10.11.46/annurev-economics-080614-115412.
 - 39) Aranda, A. M., Helms, W. S., Patterson, K. D. W., Roulet, T. J., & Hudson, B. A. (2023).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offman: Advancing a Relational Research Agenda on

- Stigma. *Business & Society*, 62(7), 1339-1377. DOI: 10.1177/00076503221148441.
- 40) Bennett, R. & Dann, S.(2000). The changing experience of Australian female entrepreneurs. *Gender, Work & Organization*, 7(2), 75-83. DOI: 10.1111/1468-043
- 41) Cantergiani, K. D.(2021).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A Study of Single Mothers' Experiences with Entrepreneurship. Doctoral dissertation, Fielding Graduate University.
- 42) Casey, S.(2023). Single mothers and resistance to welfare-to-work: A Bourdieusian account. *Journal of Sociology*, 59(2), 333-348. DOI: 10.1177/14407833211042942.
- 43) Chetty, R., Jackson, M. O., Kuchler, T., Stroebel, J., Hendren, N., Fluegge, R. B. & Wernerfelt, N.(2022). Social capital I: measurement and associations with economic mobility. *Nature*, 608(7921), 108-121. DOI: 10.1038/s41586-022-04996-4.
- 44) Colaizzi P. F.(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lle RS, King M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NY. 48-71.
- 45) Creswell, J.W.(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46) Flick, U.(2018). *Doing triangulation and mixed methods* (Vol. 8). Thousand Oaks, UK: Sage.
- 47) Fragoso, R., Rocha-Junior, W. & Xavier, A.(2020). Determinant factor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Brazil and Portugal. *Journal of Small Business & Entrepreneurship*, 32(1), 33-57. DOI: 10.1080/08276331.2018.15.
- 48) Harkness, S.(2022). The accumulation of economic disadvantage: The influence of childbirth and divorce on the income and poverty risk of single mothers. *Demography*, 59(4), 1377-1402.
- 49) Herbst-Debby, A.(2022).(De)legitimization of single mothers' welfare rights: United States, Britain and Israel.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32(3), 302-316. DOI: 10.1177/095892872210767.
- 50) Hyde, A.(2000). "Age and Partnership as Public Symbols: Stigma and Non-Marital Motherhood in an Irish Context."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7, 71-89.
- 51) Huq, A., Delaney, A. & Debney, B.(2022). Challenging the entrepreneurial discourse around women home-based workers' empowerment. *The Economic and Labour Relations Review*, 33(2), 308-328. DOI: 10.1177/10353046211072539.
- 52) Ishak, S., Omar, A. R. C., Osman, L. H., Jasli, N. S. M. & Hussain, M. Y.(2021). The Single Mother Entrepreneurs Business Growth Conundrum: What Mat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ocial Science*, 11(3), 137-153. DOI: 10.18488/journal.
- 53) Jamaluddin, F. A. A., Nasir, N. S. M. & Ishak, M. S. I.(2022). Mudarabah Based Crowdfunding Model As An Alternative Fund For Empowering Single Mother Entrepreneurs. *Al-Qanadir: International Journal of Islamic Studies*, 25(2), 102-112.
- 54) Jones, S. P. P.(2022). Powering Through: A Mixed Method Phenomenological Study of Resilience, Grit, and Positive Deviance among Single Mother College Graduates. Doctoral dissertation. Concordia University Irvine.
- 55) Kerr, S. P., Kerr, W. R. & Xu, T.(2018). Personality traits of entrepreneurs: A review of recent literature. *Foundations and Trends in Entrepreneurship*, 14(3), 279-356. DOI: 10.1561/03000000080.
- 56) Kleven, H., Landais, C. & Sogaard, J. E.(2019). Children and gender inequality: Evidence from Denmark.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11(4), 181-209.
- 57) Kysar-Moon, A.(2022).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Family Social Capital,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 Analysis Across Multiple Ecological Levels. *Journal of Family Issues*, 43(2), 3168-3193. DOI: 10.1177/0192513X21104284.
- 58) Leonard, K. S., Evans, M. B., Kjerulff, K. H. & Downs, D. S.(2020). Postpartum perceived stress explains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depressive symptoms. *Women's Health Issues*, 30(4), 231-239.
- 59) Leonard, M. & Kelly, G.(2022). Constructing the "good" mother: Pride and shame in lone mothers' narratives of mother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42(9/10), 852-864.
- 60) Lim, W. M., Badiozaman, I. F. & Voon, M. L.(2020). Barriers to workforce re-entry among single mothers: Insights from urban areas in Sarawak, Malaysia. *Journal of International Women's Studies*, 21(6), 427-449. DOI: 10.1016/j.whi.2020.05.001.
- 61) Luthans, F., Avolio, B. J. Avey, J. B. & Norman, S. M.(201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60(3), 541-572. DOI: 10.1002/hrdq.20070.
- 62) Marlow, S.(2020). Gender and entrepreneurship: past achievements and future possibilities. *International Journal*

- of Gender and Entrepreneurship.
- 63) Mat, S. H. C., Harun, M., Zainal, Z. & Jamaluddin, Z.(2017). Entrepreneurial Activity and the Time Exit Poverty among Single Mother in Malaysia.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 15(24), 319-330. DOI: 10.32890/jes2021.3.2.3.
- 64) Morris, C. & Munt, S. R.(2019). Classed formations of shame in white, British single mothers. *Feminism and Psychology*, 29(2), 231-249.
- 65) Mohd, M. S., Kamal, M. K. A. M., Yusof, M. S. M. & Yusof, N. A.(2021). Single Mothers in Malaysia: Survivability. Entrepreneurship and Empowerment. *JASSP*, 1(1), 43-54.
- 66) Muhamad, S., Rashid, N. K. A., Hussain, N. E., Akhir, N. H. M., & Ahmat, N.(2020). Resilience as a moderator of government and family support in explaining entrepreneurial interest and readiness among single moth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Insights*, 13(C), 88-127. DOI: 10.1016/j.jbvi.2020.e00157.
- 67) Muringani, J., Fitjar, R. D. & Rodríguez-Pose, A.(2021). Social capital and economic growth in the regions of Europe.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53(6), 1412-1434. DOI: 10.1177/0308518X2110000.
- 68) Onileowo, T. T.(2021). Single Mother Entrepreneurs: Issues and Challenges. *IRE Journals*, 4(9), 89-97.
- 69) Padgett, D. K.(2016).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70) Patton, M. Q.(2014).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Thousand Oaks, CA: Sage.
- 71) Rifai, A. & Goh, S. K.(2021). Is Village-Level Microfinance Beneficial at the Community, Enterprise and Household Levels? A Case Study from Indonesia.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Society*, 22(3), 1508-1524. DOI: 10.33736/ijbs.4319.2021.
- 72) Tracey P. & Phillips N.(2016). Managing the consequences of organizational stigmatization: Identity work in a social enterpris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9, 740-765.

- 투 고 일 : 2023년 09월 15일
- 심 사 일 : 2023년 10월 23일
- 게 재 확정 일 : 2023년 11월 03일